

2024. 10. 18.(금)

회원 조사 팀

2024년 4/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목 차

I. 조사 개요	2
II. 2024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	4
1. 종합 경기전망	4
2. 업종별 경기전망	5
3. 항목별 경기전망	6
4. 기타 조사내용	7

I 조사 개요

1. 조사 목적

- 본 조사는 안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활동과 유관기관의 경제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조사 대상

- 안산지역 제조업체

3. 조사 기간

- 2024년 8월 21일(수) ~ 2024년 9월 3일(화)

4. 조사 방법

- 온라인 조사

5. 조사 내용

- 2024년 3/4분기 실적 및 4/4분기 경기전망 (체감경기, 매출액, 영업이익, 설비투자 등)
- 중국의 저가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영향 등

6. 응답 현황: 총 139개사

업종	응답수	업종	응답수	업종	응답수
섬유 의복	10 (7.2%)	비금속	10 (7.2%)	전기전자	24 (17.3%)
목재 종이	7 (5.0%)	철강 금속	24 (17.3%)	운송장비	6 (4.3%)
석유 화학	22 (15.8%)	기계설비	28 (20.1%)	기타	8 (5.8%)

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작성 방법

- 응답 업체의 직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를 ‘호전’, ‘악화’, ‘불변’으로 표시한 후, 이를 지수화함.
-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한 경우 ‘호전’으로 표시한 업체가 ‘악화’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인 경우 ‘악화’로 표시한 업체가 ‘호전’으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냄.

$$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 (BSI)} = \frac{\text{'호전' 응답업체수} - \text{'악화' 응답업체수}}{\text{전체 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BSI = Business Survey Index

$0 \leq \text{BSI} \leq 200$

8. 제조업종별 재분류

- 본 보고서상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하여 유사 업종을 통합시켜 아래와 같이 재분류하였으며,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.(《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》 분류 기준)

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업종 재분류표

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	재분류	비고
섬유제품 제조업	13	섬유 의복	피혁, 염색, 가죽
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4		
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15		
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	16	목재 종이	출판, 인쇄, 펄프
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17		
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8		
가구 제조업	32	비금속	고무, 플라스틱, 비금속광물
코르크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9	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0		
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21	철강 금속	철강, 금속, 조립금속
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	22		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		
1차 금속 제조업	24	전기전자	전기장비, 전자부품
금속가공제품 제조업	25		
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		
전기장비 제조업	28	기계설비	기계설비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		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		
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31	운송장비	운송장비 부품
그 외 제조업	10,11,12,27,33,34		
		기타	정밀기기, 식품 등

II 2024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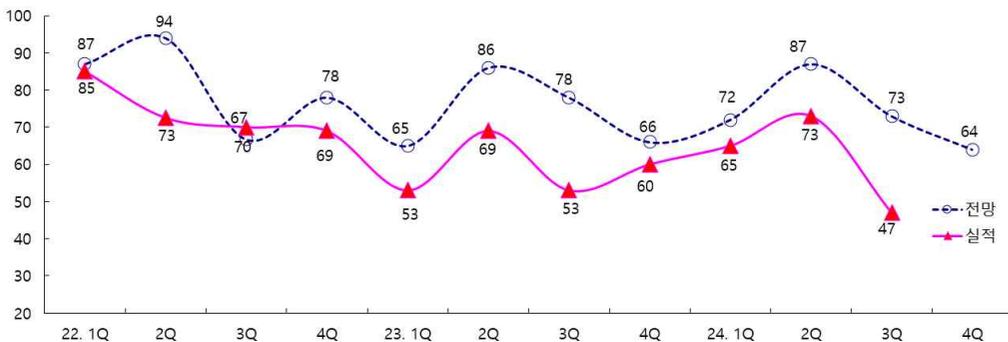
1. 종합 경기전망

안산 제조기업 24년 4분기 경기전망지수 '64', ...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대 최저 수준

- 안산지역 4분기 BSI '64', 2021년 1분기부터 지속 하락하여 역대 최저 기록
- 응답기업 66.9%, 2024년 올해 경영실적 목표'미달'로 응답
- '내수 소비 위축', '원자재 가격 상승', '수출국 경기 침체'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..

- 안산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1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'2024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' 결과에 따르면, **2024년 4/4분기 안산지역 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종합 전망치는 '64'** 를 기록함. 이는 전국 종합 전망지수(85.3)와 경기도 종합 전망지수(87.4)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로, **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1년 1분기부터 지속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 기록.**
 - 안산지역 4분기 전망이 이처럼 심각한 침체가 예상되는 이유로 고금리로 인한 내수 소비 위축,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, 수출국 경기침체가 주요인으로 조사됨.
- 3분기 실적 또한 동기간 가장 낮은 수치인 '47' 을 기록, 안산지역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됨.

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(종합)



※ BSI가 100 이하는 부정적,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임.

2. 업종별 경기전망

- 비금속(110)업종은 **호조** 전망됨.
- 섬유 의복(100), 운송장비(100)업종은 **보합** 전망됨.
- 기타(88)업종은 **부진** 전망됨.
- 전기전자(67), 기계설비(57), 석유화학(45), 목재종이(43), 철강금속(42) 업종은 **침체** 전망됨.

제조업종별 기업경기전망지수

업종	2023					비고	업종	2024					비고
	4/4	1/4	2/4	3/4	4/4			4/4	1/4	2/4	3/4	4/4	
종합경기	66	72	87	72.9	64	↑	철강금속	40	72	70	58	42	↑
섬유 의복	83	70	100	86	100	↔	기계설비	90	64	103	65	57	↑
목재종이	50	60	40	67	43	↑	전기전자	68	72	104	111	67	↑
석유화학	54	89	55	65	45	↑	운송장비	76	20	100	68	100	↔
비금속	60	67	125	120	110	☆	기타	50	114	17	29	88	↔

주: 1) ☆ = 호조(106~), ↔ = 보합(105~95), ↔ = 부진(94~75), ↑ = 침체(~7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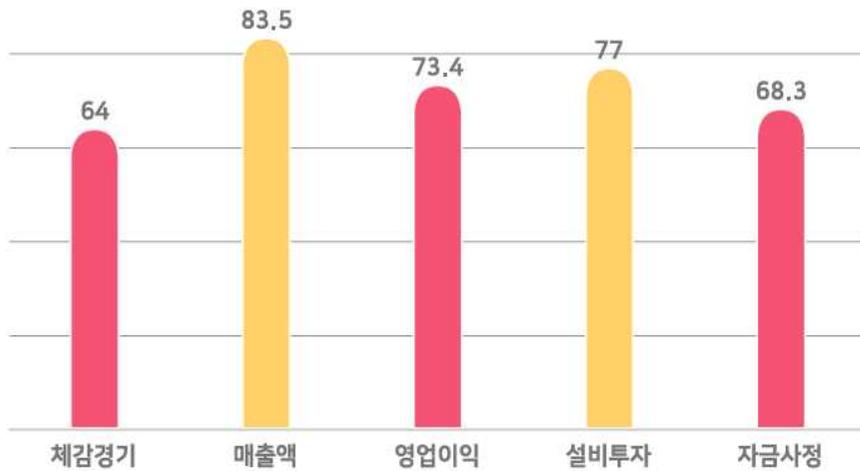
3. 항목별 경기전망

- 매출액(83.5), 설비투자(77)은 부진 전망됨.
- 영업이익(73.4), 자금사정(68.3), 종합(체감)경기(64)는 침체 전망됨.

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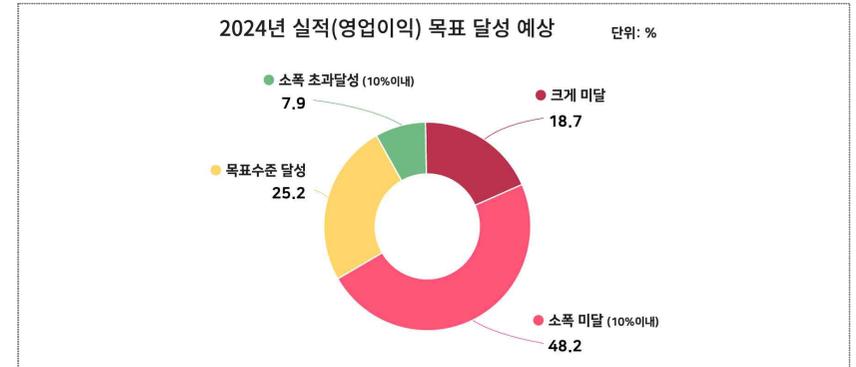
구 분	2023	2024				비 고
	4/4	1/4	2/4	3/4	4/4	
종합(체감)경기	66.2	72.1	86.5	72.9	64	↕
매 출 액	88.0	82.4	102.1	92.1	83.5	↔
영 업 이 익	78.9	77.9	95.7	82.1	73.4	↕
설 비 투 자	85.9	86.8	90.1	89.3	77	↔
자 금 사 정	78.9	79.4	85.5	81.4	68.3	↕

주: 1) ☆ = 호조(106~), ☺ = 보합(105~95), ↔ = 부진(94~75), ↕ = 침체(74~)



4. 기타 조사내용

- 1) 귀사의 금년 실적(영업이익)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
 - 응답기업의 66.9%(크게미달(18.7%), 소폭 미달(48.2%))가 연초 계획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고, ‘목표수준 달성(25.2%)’, ‘소폭 초과 달성(10% 이내) (7.9%)’ 라고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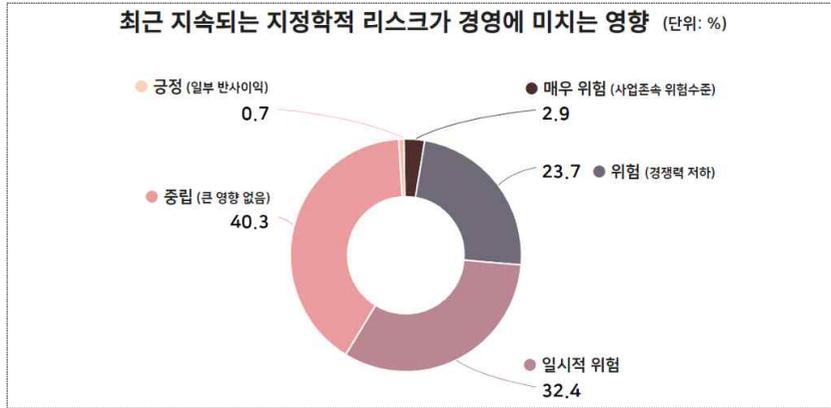
- 2) 귀사의 4분기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무엇입니까?

- 응답기업의 30.3%가 ‘내수소비 위축’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, ‘유가·원자재가 상승(19.9%)’, ‘수출국 경기침체(17.2%)’, ‘환율변동성 확대(13.8%)’, ‘고금리 등 재정부담(12.1%)’, ‘기업부담법안 등 국내정책이슈(3.4%)’, ‘기타(2%)’, ‘관세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(1.3%)’ 순으로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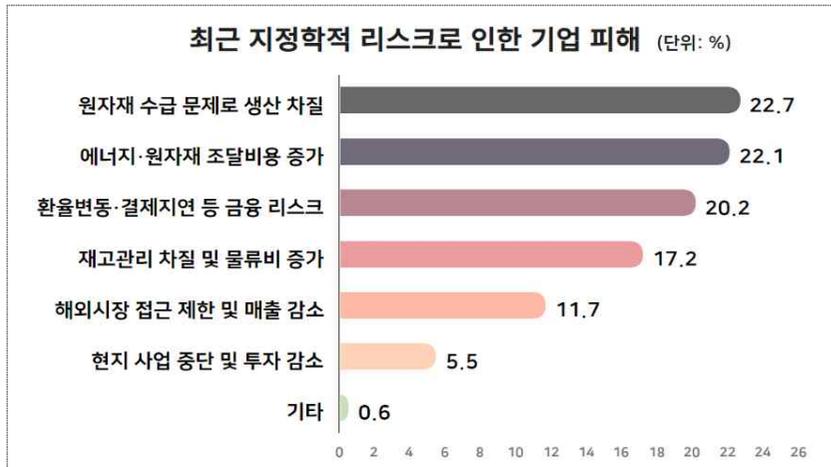
3) 최근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(미-중갈등, 러-우전쟁, 중동분쟁 등)가 귀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(복수 응답)

- 응답기업의 59% ('매우위험(사업존속 위협수준) (2.9%)', '위험(경쟁력 저하) (23.7%)', '일시적 위험(32.4%)')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'위험' 이라고 응답했으며, '중립(40.3%)', '긍정(일부 반사이익)(0.7%)' 라고 응답



3-1)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귀사가 주로 경험한 피해는 무엇입니까? (복수 응답)

- 응답기업의 22.7%가 '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'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, '에너지·원자재 조달비용 증가(22.1%)', '환율변동·결제지연 등 금융 리스크(20.2%)', '재고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(17.2%)', '해외시장 접근 제한 및 매출감소(11.7%)', '현지 사업 중단 및 투자 감소(5.5%)', '기타(0.6%)' 순으로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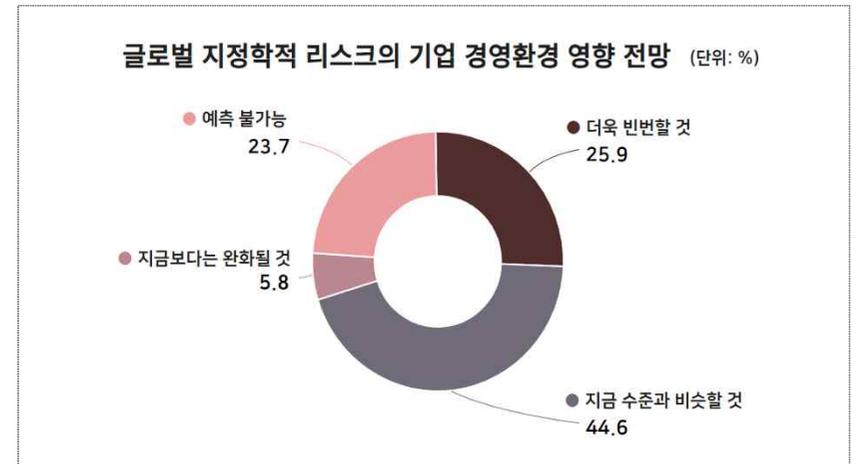
4)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 귀사의 기업 운영에 발생한 변화를 모두 체크해주시시오

-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응답 기업이 꼽은 기업 운영의 변화로는 '대응 조직 신설 (8%)', '해외조달 부품소재의 국내조달 전환(25%)', '해외 생산시설 축소 또는 철수 (7%)', '기존 수출시장 외 신규 대체시장 발굴(46%)' 이라고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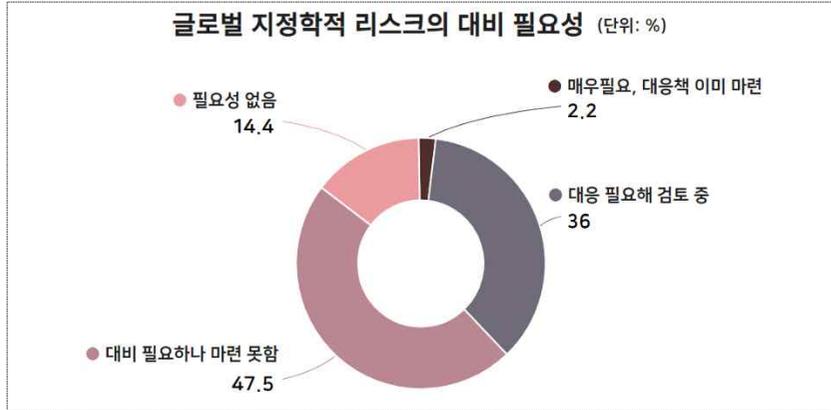
5) 귀사는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?

- 응답 기업의 44.6%가 '지금 수준과 비슷할 것'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, '더욱 빈번할 것(25.9%)', '예측 불가능(23.7%)', '지금보다는 완화될 것(5.8%)' 순으로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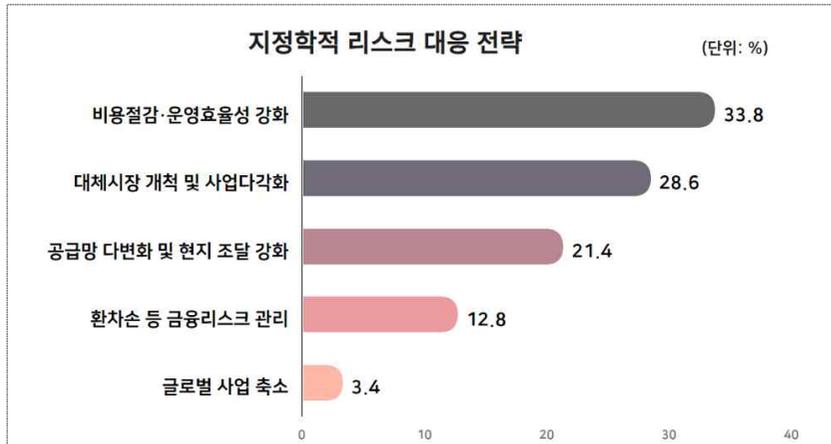
6) 귀사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응답기업의 47.5%가 '대비 필요하나 마련 못함'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, '대응이 필요해 검토 중(36%)', '필요성 없음(14.4%)', '매우필요, 대응책 이미 마련(2.2%)' 순으로 응답



7)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있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했거나 고려하고 있습니까? (복수응답)

- 응답기업의 33.8%가 '비용절감·운영효율성 강화' 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, '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다각화(28.6%)', '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조달 강화(21.4%)', '환차손 등 금융리스크 관리(12.8%)', '글로벌 사업 축소(3.4%)' 순으로 응답



※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각종 자료는 홈페이지 (<http://ansancci.korcham.net>)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
※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조사팀 【T. 031-410-3030(#246)】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보고서에 대하여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, 타 용도로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※ 본 보고서의 내용은 대표의견이 아니며,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.

※ 유의사항

2024년 3/4분기 업종별·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집계 오류로 이전 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가 정정·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’24.10.18. 9:00)

- 발행인: 권혁석
- 발행처: 안산상공회의소
- 발행일: 2024. 10. 18.

[비매품]